지혜 · 자비 겸수해야 '참불자'… 수행 · 포교 매진



심 위원은 지난 8월 24일에서 25일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포교사단 제17회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심재덕 위원은 2009 부산 · 경남지역단 단장으로 취임했다.



2019 신년법회 모습.



천마재활원에서 포교하는 심 위원.

'심재덕 포교사'

B1면에서 계속

꾸준한 공부와 활동으로 단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심 위원은 조계종포교원 포교사단 중앙임원을 역임하고 2009년 부산 · 경남지역단(이후 경남지역단 분리)의 단장으로 취임한다. 당시 행정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움 속에 있었던 조직의 수장을 맡은 심 위원은 원칙과 소신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심 위원은 2011년까지 부산 · 경남지역단을 이끌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는 조계종 포교사단 부단장을 맡아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며 포교사들의 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선 포교사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다.

장애인 등 포교 불모지 개척

불자는 지혜와 자비,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했다. 심 위원은 지혜를 위한 배움의 길을 쉬지 않으면서 자비행에 바탕을 둔 포교활동을 이어갔다. 심 위원은 1995년 조계종 포교사 품수를 받으면서 다음해인 1996년 2월부터 지적장애인을 위한 천마재활원에서 포교활동을 이어갔다. 심 위원은 정식으로 포교사 활동을 하기 전부터 지역봉사팀에서 활동했고 자주 방문했던 천마재활원에서 장애인들에게 특히 지적 장애인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천마재활원에서 평소 봉사를 한 것도 있어 인연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아이들이 반야심경을 줄줄 외웠다는 겁니다. 지능은 일반인과 다소 차이가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다소 있기는 했지만 부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그들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고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일보다 수십 배의 노력이 더 필요했다. 가장 간단한 합장부터 절하기까지, 법회는 쉽지 않았다. 심 위원이 배우고 익힌 것을 조금도 풀어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심 위원은 괜찮다고 했다. 불법을 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심 위원은 그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읽어주고 미소 지어주며 친구가 되었다. 손을 잡아 주며 그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의 법은 어느 곳에서나 고루 전해져야 한다고 그는 믿었고, 그런 그는 포교사로서 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종교 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생들을 강압적으로 불러 모은다거나 억지로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법회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원생이 48명인데 40여 명이 법회를 찾습니다. 지난 6월에는 원생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 포교국장인 효산스님과 포교사단들이 수계법회를 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계의 삶을 아이들이 지켜나가고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보다 행복한 삶입니다."

현재 심 위원은 '고려일진'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사장이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부산형 착한기업'에 선정되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둘이서 부품을 조립했던 창립 시기에서 현재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심 위원은 천마재활원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 직업재활 훈련소로 공장을 내어주기도 했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회사로 오는 법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법회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자립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직업재활훈련을 하면 바리스타부터 도자기 만들기까지 많은 훈련을 합니다. 불자로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위원은 그들을 위해 사회복지가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포교뿐 아니라 능숙하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중의학도 전공했다. 아프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이 부처님을 찾을 때 약사여래불과 같은 마음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포교사로 바쁘게 생활하는 그는 이 모든 활동의 원동력은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수행시간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아침 5시 40분이면 심 위원은 일어나 부처님을 예경하는 예불로 하루를 시작한다. 참선과 함께 불자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오후 7시에서 8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예불을 올리며 하루를 점검한다. 7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온 수행이다. 회사 집무실에는 틈틈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도 마련되어 있다.

"신행수행은 모든 활동의 중심입니다. 저를 바로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며, 더 나은 불자가 되도록 하지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을 부처님 앞에서 비추고 하심하면서 참회하는 생활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해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 위원은 포교를 위해선 지혜를 갖추고 자비심으로 활동하는 신행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포교는 삶, 발자국이 되다

심 위원은 지난 8월 24일에서 25일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포교사단 제17회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실천하고 화합하는 포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배 포교사들에게 남기는 당부였다.

"포교사의 길은 무주상보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건 불법의 가치를 알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좋아서 배우게 되고 배우면 나누고 싶고 나누기 위해 실천하는 삶이 곧 포교입니다. 포교사에게 포교는 곧 삶입니다. 수행으로 하루를 살고 미소 하나만으로도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1기 포교사로 첫발을 내디뎠었던 선배 포교사는 기본을 강조했다. '포교사'라는 단어 하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그는 수많은 후배들이 뒤따라야 할 발자국이 됐다.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이유라고 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부처님의 전도선언(傳道宣言)이다. 바로 포교사의 삶이자 목표이다. 심 위원이 고요하게 걸어온 길이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이다.

불연 · 공부 · 수행

어릴 적부터 조모와 함께 신행
성인 돼서도 불교적 삶 유지
1993년 조계사불교대학 입학
부산서 서울 오가며 불교 공부
2년 과정 수료 1기 포교사 품수

포교사의 길

범어사 · 포교사회서 활동 시작
2013년 조계종 재가자 '선혜' 품수
2009년 부산 · 경남지역단장 취임
2012년 조계종 포교사단 부단장
1996년 천마재활원 포교 나서
매일 아침 · 저녁예불 하루일과
2019년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

